

비육돈 계열화 사업의 현실과 전망

중 원 종 추

대 표 이 치 한

1. 양돈 산업의 위치

국내의 양돈 산업은 '60년대의 부업형태의 생산 단계를 거쳐 '70년대의 고도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양돈업의 초기 발전 단계는 부업의 형태이므로 체계적 생산능률이 미약 하였으므로 정부 정책 주도의 산업 보호 측면에서 육성 발전되어 왔으나 정부의 정책 부재 및 시행착오로 과도기적인 추진과정에서 많은 악순환이 점철 되었음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생물이라는 한정적 수명을 갖은 상품 생산의 끊임없는 연속, 통계의 불확실로 인한 수급의 불균형, 한치앞을 내다볼수 없는 것이 양돈업으로서 경기 변동에 의한 폭등 폭락의 가격 파동의 연속으로 생업으로서의 위기감과 폐수문제, 인력난, 사육규모간의 갈등, 등으로 투자 의욕을 반감시키는 현상에 도래한 것이 현실이라 하겠다.

자본 보유 및 투자 여력이 유리한 기업은 경기 변동에 따라 투자 여력을 확충, 기업을 성장시켰으나 자본 여력이 미약한 농가 및 중소기업형태는 자본의 한계로 가격이 폭락 되었을시 도산 및 빚더미에 올라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실로 고난과 많은 우여곡절로 점철된 양돈 산업은 외형의 규모는 짧은 기간내에 장족의 발전은 하였으나 내실면에서 좀더 냉철히 분석해볼때 산업의 위치와 취약성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7년후 농축산물이 완전 수입 개방되어 21세기를 맞는 양돈산업의 위상을 예측해보면 국제 자유시장 경쟁속의 오늘의 우리 양돈 산업 현실은 심각한 타격의 목전에서 돌출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으며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 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돈 산업에 관련된 모든 산업들의 새로운 대안과 혁신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공동으로 몰락할 처지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개인보다는 공동 조직의 거대한 힘의 효율화가 요구되는 것이 오늘의 양돈 산업의 현실이자 위치라 하겠다.

2. 계열화의 필요성

생산된 상품이 소비 시장에서 구매 의욕을 창출 하기 위해서는 가격과 품질에서 타 상품에 비해 우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상품은 팔수도 없고 팔리지도 않을 것이다. 국내의 양돈 산업은 그동안 국민 생활소득수준 저하로 돈육이 단순한 기호 식품으로 인식되어 소비 확산이 둔화 되었으나 국민소득 4,000불을 넘으면서 식육소비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게 작금의 추세이다.

보수적인 식생활에서 점차 생활 수준 향상과 사회의 다양성, 생활 여건 변화 의식구조와 새로운 식생활의 패턴이 급속도로 변모하여 가고있다. 서울의 국민학생중 30%가 우리 전통의 식품인 김치보다는 간편하고 영양가 많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입맛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식생활의 변화를 예고 하는 것이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며 신선하고 오염되지 않은 무공해 식품을 현시대는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돈육에 대한 가공과 주부들의 조리기술의 교육과 중고등학교의 가사실습을 통한 장기적 교육 방향과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외국의 농산물이 범람 한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막연히 국내 돈육의 소비권장이나 캠페인을 벌리면서 수입품을 먹지 말자는 국민적 애국심이나 동정심에서만 호소할수는 없다.

오직 소비자는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자는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공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돈 산업은 이에 대한 대안과 추진계획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하며 지금의 방만한 운영 관리에서 파생되는 원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체제를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극복할 수 있는 양돈산업인의 자세와 대처하는 슬기가 필요하다.

(1) 생산비 절감

지금까지는 양돈산업에 대한 금지와 위상의 빈곤 상태에서 관련된 산업들이 별개의 독자 경영으로 나름대로 성장 산업으로 이끌어 왔으나 앞으로 전면적인 수입 개방이 되어 외국 상품과 경쟁 하였을시 채산성 악화에 대한 양돈인의 심리적 압박감의 극복은 농촌생활의 철학과 직업의식이 없는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양돈 산업의 장단기적 전망으로 볼때 채산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위성 생산비를 낮추는 길밖에 없다. 일본에 돈육 수출을 가장 많이하는 덴마크, 대만과의 생산비를 표1과 같이 비교하여 보면 우리나라가 20%이상 생산비가 높고 돈육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을 직감할수 있다.

[표 1] 돈육생산 경쟁국별 생산원가 비교

구 분	한국	일본	대만	덴마크	영국
생체1kg당 생산비(원)	1,200	1,507	918	924	891
비 율(%)	100	125.5	76.5	77.0	74.2

[표 2] 통합 경영시 생산비 절감 내용(생체1kg생산비 1,200원기준)

관련사업	생산비절감	경 영 방 안
사 료	5% 60원	조합형태 또는 자가 배합 공장설립
도축장, 육가공 공장	5% 60원	산지도축장설립및 조합형 태육가공공장설립
유 통 판 매	5% 60원	대형돈육전문센타설치및자 가상표부착판촉활동
종돈, 번식사업	5% 60원	종돈개량, 육질, 번식유허 상및 시설개선
비육돈계약사육	5% 60원	위생돈육생산, 육성률, 사 료요구를, 약품절감개선
계	25% 300원	

우리나라가 절대 불리한 경쟁에서 외국과 동등한 가격 경쟁에 서기 위해서는 기본 생산비에서 20% 이상의 생산비를 절감하는 길밖에 없다. 돈육1차 생산자 주체에서 자체 생산성 향상(종돈 번식을 육성을 시설개선)으로 현재보다 5%정도의 생산비 절감은 가능하나 그 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머지 15%이상의 생산비 절감은 표2에서 보듯이 2개 이상의 관련 산업이 통합 운영되면 가능하다. 양돈 산업에 관련된 산업들이 완전 통합된다면 지금보다 25%이상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 함으로 국내의 식육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 발전 시킬수 있다.

지금과 같이 관련 산업들이 독자 경영에 의한 과도한 마진을 추구할시 최종 상품인 돈육에 생산비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 원가 양등으로 소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여 관련된 산업들이 공동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관련 산업들이 통합 경영에 의한 계열화가 이루어졌을시 양돈산업은 매우 유리하고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

(2) 품질 고급화에 대한 시급성

국민소득 4,000불을 넘으면서 레저 스포츠 외 식 산업이 급속히 팽창하여 국민들의 놀이 여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하여 가고 있다.

요즈음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알맞게 개발된 양념 통닭의 체인점이 시장의 웅만한 상가 지역마다 번창하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TV, 광고와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급속히 성장되어 가는 추세이다.

물론 돼지고기도 소풍철 피서철이 되면 각 야외장에서 숯불에 연기가 진동하여 코를 찌르고 있으나 이는 전근대적 요리 방법에 지나지 않으며 극히 한철에 소비가 편중되어 있는것이 현실이기도하다.

돈육도 식품 산업으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국민이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상품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값싸고 저렴하게 공급 하는것도 중요하나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로부터 호평받아 계속 애용하는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양돈 산업의 최종 이익 발생이 돈육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넘어갈때 발생한다는 원리를 적용할때 가장 중요한 최종 소비 시장을 누가 관리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는 달라질수 밖에 없다.

지금과 같이 돈육을 유통하는 상인들에게 돈육 소비 시장을 맡겼을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볼수 있으며 또한 유통 질서 문란을 가져 올것이다. 어쨌든 상품은 잘팔리는 물건이 되어야 하며 팔리지 않는 물건은 생명이 끝난자와 같기 때문에 돈육 산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최종 소비 시장까지 통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돈육 생산이 계열화 되어 도축 가공 유통이후의 과정까지 통합주체에서 일괄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면 가격의 저렴과 품질의 고급화로 시장의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나갈수 있을 것이다.

3. 계열화의 현실

우리나라는 1985년 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의 기업 양돈장이 계열화에 참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양돈장에 정부의 계열화 생산 장려금을 일부 지원함에 따라 참여한 업체도 있다.

표3과 같이 89년말 11개 계열 주체에서 174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계약 사육돈 131,352두를 출하하여 국내 전체 출하 물량의 약 1.4%를 차지 하고 있는데 계열화에 의한 출하 두수가 매우 저조한 실적이며 앞으로 장려및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상당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볼수 있다.

[표 3] 연도별 계열화 실적

연 도 별	1985	1986	1987	1988	1989	계
계열주체수	2	5	5	7	11	30
계열농가수	34	97	107	100	174	512
출하두수(두)	4,977	42,222	72,533	114,636	131,352	365,720

(자료:대한양돈협회:1989년)

(1) 양돈 계열화(integrated pork production)와 양돈생산 체계(pork production system)

양돈 계열화의 경영은 관련 산업을 통합하여

단일 이윤을 추구 획득하도록 서로간의 기능에 배려, 공평한 이익 배분을 경영 이념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양돈 계열화는 1, 2, 3차 관련 산업을 완전 통합하여 통합 주체에서 돈육 생산을 위한 계열화가 시행되고 있다기 보다는

그림 1. 통합주체 경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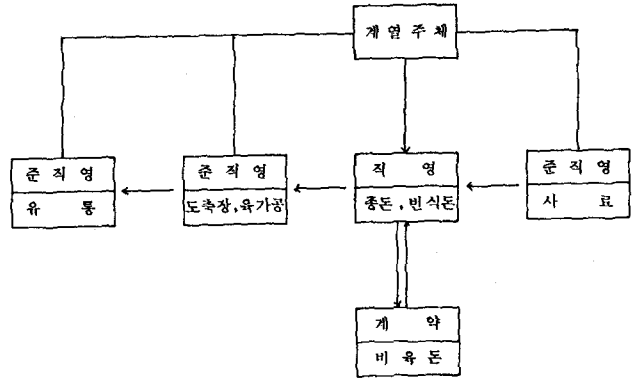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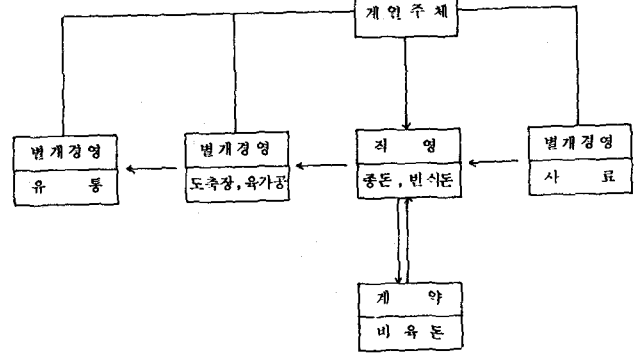


그림 2. 계열주체 경영체계



사육 주체인 대규모 양돈장에서 자체 일괄 생산 체계 방식에서 고도의 경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능 생산에 불과한 비육돈 사육을 농가에 위탁 계약 사육 방식에 의한 경영 합리화 형태의 계열화 체계라고 볼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개념을 정의 한다면 돈육 생산 계열화(integrated pork production)방식이라기 보다는 전보다 일단계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돈육 생산 체계(pork production system)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국내의 계열화 실태는 아직 초보 단계에 있으며 계열화가 본래의 체계대로 발전하려면 관련 산업들이 양돈 산업의 위기 의식을 공동으로 느끼며 상호 필요로 할때 보다 활발하게 전개 되리라 본다.

(2) 계열화 경영 체계

국내에는 두가지 유형(類型)에 의한 계열화가 시행되고 있는데 제1. 유형은 기업축산으로 자체 사육 농장(종돈, 번식돈)을 경영 하면서 양돈 농가와 위탁 계약 사육을 체결, 비육돈을 생산하고 동일 그룹내에 사료 육가공 유통 관련 기업과 상호 연계 보완적 경영으로 통합 방식에 의한 경영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2. 유형은 대규모 양돈장으로 자체 사육 농장(종돈, 번식돈)을 경영 하면서 양돈 농가와 위탁 계약 사육을 체결 비육돈을 생산하고 별개 회사의 사료 육가공 유통 관련 제품을 계약 공급 및 납품으로 계열 주체 방식에 의한 경영 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다.

위의 두가지 유형을 요약하여 구분 짓는다면 통합 주체와 계열 주체 방법에 의한 계열화라고 구분 지을 수 있다.

그림 1, 2에서 보듯이 통합 주체와 계열 주체가 공통적으로 같은것은 비육돈 위탁 계약 사육만 수직 체계하에 두어 계열화 되고 있으며 기타 2, 3차 관련 산업은 수평적 관계로 상호 독립적 보완적 연계적 방법으로 경영되고 있으며 경영 합리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경영 체계의 개선이 보완 되어져야할 실정이다.

(3) 계열화의 문제점

국내에 계열화가 시행 된지도 6년여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으나 연간 계열화에 의해 출하되는 비육돈은 매우 적은두수에 불과 하며 계열화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 하지만 시행 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 봉착되고 있는것도 사실이다.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하루 아침에 떼돈을 벌겠다는 생각이나 편이하게 일하려는 사고와 투기 심리가 근절되지 않는한 계열화의 시행 및 정착은 매우 어려워지리라 예견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가의 안정으로서 계열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에 의한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인 수급조절 정책이 관건이라 하겠다.

계열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발전의 전제조건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양돈농가의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며 계열농가의 과대이익에 대한 자제 없이는 계열화 사업이 정착되기 매우 어려우므로 계열화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의 개선과 보완이 선행 되어져야 한다.

첫째, 수급 불균형에 의한 가격 파동 불안으로 계열화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둘째, 생산비에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가 독자적으로 경영되는 사료 회사에 구입선이 편중되어 있어 과중한 원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생산자 조직 또는 자가 배합 사료 공장 설립이 유리 하겠으나 시설조건과 정부의 자금 지원이 현실적으로 따르지 않아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계열농가가 불황 및 가격 안정시에는 계열화 계약조건을 잘 준수하나 가격이 폭등하여 높은 가격이 장기화 되었을시 기대이익 이상의 투기 심리 때문에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계약 사육을 기피하려는 현실이 문제이며 자체 일관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사고(思考)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마땅한 대상 농가의 선정이 어려운것이 실상이라 하겠다.

계열화 희망농가의 대부분이 기술 및 자본력이 미약한 농가가 계약 사육을 원하고 있어 계열 주체는 사업 실행상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위탁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많은 투자가 뒤따르게 된다.

넷째, 계열 주체가 대상 농가에 사육계약두수에 상당한 담보물 제공 및 계약 조건들을 대상 농가측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어 계약 사육에 대한 기피 현상이 대두 되고 있다.

다섯째, 계열 농가측에서 방역 소홀로 질병이 발생 하였을 경우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적, 제도적으로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계열농가 측에서 소작 또는 하청 업체라는 중속 관념때문에 주체 의식이 결여 되어 있다.

일곱째, 대부분의 계열 주체가 도축장 및 육가공 공장을 통합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종 소비처의 위생 품질 가격 관리를 통한 대량 소비의 수요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여덟째, 계열화의 경영에 필요한 표준 사양 지침 및 표준 경영 지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계열 운영에 관련된 합리적인 경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아홉째, 계열 주체에서 1, 2, 3차 산업까지의 기능 업무를 총괄할수 있는 전문 경영 능력 부족으로 완전 통합 체계를 갖추기란 많은 시간이 필

요하며 정착 과정에서 많은 시행 착오가 유발될 수 있다.

열번째, 돈육 유통 산업이 뒤떨어져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피해를 보는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의 유통 합리화 정책이 필요하다.

열한번째, 도축장및 육가공 공장이 특정 지역에 편중 되어 있어 운송에 따른 손실이 막대하여 중간상인들의 술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양돈집단 생산지에 도축장및 육가공 공장 설립이 필요하다.

4. 계열화 발전 방안

계열화가 뿌리 내리고 정착하기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는바이다.

첫째, 정부는 돈육가격 안정화 정책을 강력히 실시 하여야 하며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의 동등한 세계 혜택및 지원이 뒤따라야 하며 수입되는 돈육 생산 기본 재료비(사료 약품 기구)가 돈육 생산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와 원가 절감이 될수 있도록 일방 통행식 유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업양돈형태에서의 초기에 정부가 추진하던 확일성의 종돈 개량 사업에서 벗어나야 하며 양돈선진국에서 보듯이 정부정책의지에 의한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양돈연구소**를 조속히 설치하여 과감한 투자로 장단기적인 발전모델 연구 발표와 대책제시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고 개량의 연구모델을 민간 차원인 계열 주체에 예산을 지원 개량 사업을 이전 하는것이 국가 전체의 수익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

둘째, 전체 생산비중 가장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계열 주체 또는 생산자 조직 형태의 자가배합 사료 공장 설립이 필수적이므로 공장 설립에 따른 법적 개선및 대폭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셋째, 계열 주체는 계열 농가와의 공존 공생 한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이익을 공평 분배 한다는 경영 이념이 성립 되어야 하며 경영 평가를 공개하는 제도가 뿌리 내려야 한다.

넷째, 계열 주체에서 도축장및 육가공 공장 통합 또는 별도 운영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가 집단 양돈 산지에 도축장 설립및 육

가공 사업을 지원하여 생산자 조직 형태의 유통 및 자가 상표 부착에 의한 상품 유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농가의 소득 보장및 생활안정 측면에서 양돈 기술을 보유할 노동력을 갖춘사람과 돈사 및 토지가 있는 농가는 정부의 지원으로 계열화에 참여 할수있는 길을 열어 주는것이 농가 소득을 높이는 길이다.

여섯째, 계열주체의 계열화 사업에 대한 인식이 대규모 양돈장의 문어발식 두수확장 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받고 있어 사업 확장이 어렵고 정부의 자금 지원에 전혀 따르지 않아 계열 주체의 독자적인 사업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수급 조절및 국제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향상 차원에서 계열 주체에 자금 지원이 있어야 한다.

5. 계열화 전망에따른 소견

지금까지 생산자 중심의 단체들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직의 힘이 분산되고 좀더 발전하지 못한것은 본래 목적대로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를 직시하여 불매의 양돈산업은 조직의 힘이 아닌 각개의 힘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국내외의 여건들이 국내 산업 우선 보호 육성 측면에서 다루어 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던것이라 사료된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화라는 시대적 흐름으로 불매 우리 양돈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려면 생산자 조직의 경영 다각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산업 사회의 자유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는 직업에 좀더 충실할수 있는 프로근성에 의한 능률주의에 입각한 고도의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관련 산업의 영속은 이루어 질수 없고 성장 할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냉혹한 시대적 현실에서 양돈 산업이 계속 성장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관련 산업들이 별개의 경영 단위에 의해 소유 관리 된다면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 할 것이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체질을 강화 하기 위해서는 양돈 산업에 관련된 산업들이 상호 경영 합리화의 조치를 강구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름길인 계열화에 대한 보다 새로운 방향 구상과 대책이 전개 되어야 한다. *#